

3과

##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 「들어가면서」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유약한 것도 아니고, 절제 없는 분노도 아닙니다. 성경은 온유함을 친절함(고전 13장), 침묵(민 12장), 절제(신 34장), 보복하지 않음(삼상 24장),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힘(갈 6장)으로 보여 줍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깊고, 넓은 품을 배워가는 순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사랑이 아닌 8가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설명합니다. 그중 7가지는 긍정형, 8가지는 부정형입니다. 특히 부정형 표현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사랑의 경계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 「장사꾼 이야기」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던 두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격을 내리면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내렸고, 한쪽이 사은품을 내걸면 다른 쪽은 더 좋은 사은품을 내걸었습니다. 마치 목적이 이익을 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장사꾼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나? 내가 들어주겠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가 받는 것의 두 배를 네 경쟁자가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자동차를 원하면 한 대를 받게 될 것이고, 경쟁자는 두 대를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쟁자는 그 갑절의 부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제 눈 하나를 빼 주십시오.”

-- 이국진, 『사랑』 중에서

### 나눔 질문

잠언 14:30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시기심은 뼈를 썩게 만듭니다.

1. 삶 속에서 ‘괜히 경쟁심이 올라왔던’ 사소한 순간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 다이어트, 운동, 자녀 이야기, 쇼핑, 성적, 성취, 승진 등)

2. 은근히 시기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이겨 내기 위해 시도해 본 생각의 전환이나,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성경 속 시기심」

### 1. 가인의 시기

- 배경: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심
- 결과: 비교와 시기로 아벨을 죽임
- 대책: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 4:7)

### 2. 요셉 형들의 시기

- 배경: 아버지의 편애와 꿈 이야기로 시기 촉발
- 결과: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넘김
- 대책: 용서와 화해(유다의 대속)

### 3. 사울 왕의 시기

- 배경: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의 노래로 시기 촉발
-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는 영적·정신적 혼란
- 대책: 요나단의 우정

### 4. 도비야의 시기

- 배경: 느헤미야가 개혁을 주도하자 자신이 중심이 되지 못한 것에 분노
- 결과: 조롱, 위협, 음모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대적이 됨
- 대책: 성전의 주인은 누구인가?(느 13:4-5)

### 5. 큰 형(집에 있는 탕자)의 시기

- 배경: 돌아온 탕자, 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분노
- 결과: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함
- 대책: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의인의 관점과 죄인의 관점)

### 6. 바리새인들의 시기

- 배경: 예수님의 권위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적대감이 심화됨
- 결과: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앞이더라”(마 27:18)
- 대책: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 나눔 질문

1. 가인, 요셉의 형들, 사울, 도비야, 큰형, 바리새인들의 모습 중에서 지금의 나와 닮아 있다고 느껴지는 인물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적용하기」 ‘시기’를 이기는 ‘감사’

시기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뼈를 갇아먹듯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시기는 비교와 불평 속에 나를 가두지만, 감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바라 보게 하며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시기가 분노와 불신을 키운다면, 감사는 믿음과 소망을 자라게 하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결국 감사하는 마음은 시기를 잠재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로 이끌어 줍니다.

## 나눔 질문

1. 2026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싶은 영혼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함께 중보합시다.